인문계열

국어 영역

SN · EBS 연계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1.5점]

[앞부분 줄거리] '나'는 일본인이 주인인 가게의 점원으로, 어린 시절 자신을 돌봐 준 아주머니에게 폐만 끼치는 아저씨를 못마땅히 여긴다.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 감옥에서 병에 걸려 온 아저씨는 아주머니의 정성스러운 간호로 병세가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집에만 머물러 있다.

"이 애?" / "네?"
㉠"사람이란 것은 누구를 물론허구 말이다, 아첨하는 것같이 더러운 게 없느니라." / "아첨이요?"
"저 위로는 제왕, 밑으로는 걸인, 그 모든 사람이 위선 시방 이 제도의 이 세상에서 말이다, 제가끔 제 분수대루 살어가는 데 있어서 말이다, 제 개성을 속여 가면서꺼정 생활에다가 아첨하는 것같이 더러운 것이 없고, 그런 사람같이 가련한 사람은 없느니라. 사람이란 건 밥 두 그릇이 하필 밥 한 그릇보다 더 배가 부른 건 아니니까." / "그건 무슨 뜻인데요?"
"네가 일본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성명까지 갈고 모든 생활 법도를 일본화하겠다는 것이 말이다."
"네, 그게 좋잖아요?"
"그것이 말이다, 진실로 깊은 교양이나 어진 지혜의 판단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그도 모를 노릇이겠지. 그렇지만 나는 보매, 네가 그런다는 것은 다른 뜻으로 그러는 것 같다."
"다른 뜻이라니요?" / "네 주인의 비위를 맞추고, 이웃의 비위를 맞추고 하자고……."
"그야 물론이지요! 다이쇼*의 신용을 받어야 하고, 이웃 내지* 인들하구도 좋게 지내야지요. 그래야 할 게 아니겠어요?" / "……."
㉡"아저씨는 아직두 세상 물정을 모르시오. 나이는 나보담 많구 대학교 공부까지 했어도 일찌감치 고생살이를 한 나만큼 세상 물정은 모릅니다. 시방이 어느 세상인데 그러시우?"
"이 애?" / "네?"
"네가 방금 세상 물정이랬지?" / "네."
"앞길이 환하니 트였다구 그랬지?" / "네."
"환갑까지 십만 원 모은다구 그랬지?" / "네."
"네가 말하는 세상 물정하구 내가 말하려는 세상 물정하구 내용이 다르기도 하지만, 세상 물정이란 건 그야말로 그리 만만한 게 아니다." / "네?"
"사람이란 건 제아무리 날구뛰어도 이 세상에 형적 없이 그러나 세차게 주욱 흘러가는 힘, 그게 말하자면 세상 물정이겠는데, 결국 그것의 지배하에서 그것을 따라가지 별수가 없는 거다." / "네?"
"쉽게 말하면 계획이나 기회를 아무리 억지루 만들어 놓아도 (㉢)."
"젠장, 아저씨두…… 요전 『낑구』*라는 잡지에두 보니까, 나폴레옹이라는 서양 영웅이 그랬답디다. 기회는 제가 만든다구. 그리고 불가능이란 말은 바보의 사전에서나 찾을 글자라구요. 아자꾸자꾸 계획하구 기회를 만들구 해서 분투노력해 나가면 이 세상일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나요? 한번 실패하거든 갑절 용기를 내가지구 다시 일어서지요. 칠전팔기 모르시오?"
"나폴레옹도 세상 물정에 순응할 때는 성공했어도 그것에 거슬리다가 실패를 했더란다. 너는 칠전팔기해서 성공한 몇 사람만 보았지, 여덟 번 일어섰다가 아홉 번째 가서 영영 쓰러지구는 다시 일지 못한 숱한 사람이 있는 건 모르는구나?"
"그래두 두구 보시우. 나는 천하없어두 성공하구 말 테니…… 아저씨는 그래서 더구나 못써요? 일해 보기두 전에 안 될 줄로 낙심 먼저 하구……."
"하늘은 꼭 올라가 보구래야만 높은 줄 아니?"
원 마지막 가서는 할 소리가 없으니 동에도 닿지* 않는 비유를 가져다 둘러대는 걸 보아. 그게 어디 당한 말인고? 안 올라가 보면 뭐 하늘 높은 줄 모를 천하 멍텅구리도 있을까?

– 채만식, 「치숙」

(EBS, 『 2027학년도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 한국교육방송공사, 2026, 173–174쪽 수록)

*다이쇼: 일본어로 주인을 이르는 말.
*내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을 지칭하는 말.
*『낑구』: 일제 강점기의 잡지 이름. 영어 'king'의 일본식 발음 표기.
*동(이) 닿다: 앞뒤 조리가 맞다.

(1) 윗글을 <보기 1>과 같이 요약할 때, ⓐ와 ⓑ에 들어갈 단어를 윗글에서 각각 찾아 쓰시오. [3.2점]

<보기 1>

두 인물의 대화는 식민지 현실에 대응하는 상반된 가치관을 보여 준다. '나'는 분투노력하여 다이쇼의 (ⓐ)을/를 얻고 일제에 동화되어 부를 축적하는 삶을 긍정하는 반면, 아저씨는 제 분수대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개성을 속여 가면서까지 현실 생활에 (ⓑ)하는 삶은 가련하고 무가치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2) <보기 2>를 활용하여 ㉠과 ㉡에 쓰인 상대 높임법의 등급을 구별하고, ㉡의 종결 표현을 통해 드러나는 '나'의 아저씨에 대한 태도를 한 문장으로 쓰시오. [4.2점]

<보기 2>

상대 높임: 화자가 청자, 곧 말을 듣는 상대에게 높임이나 낮춤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주로 종결 어미로 실현됨. 상대 높임은 상대를 높이는 정도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뉘며, 격식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뉨.

격식체	격식체	격식체	격식체	비격식체	비격식체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게체	해라체	해요체	해체

(EBS, 『 2027학년도 수능특강 국어영역 언어와 매체 』, 한국교육방송공사, 2026, 29쪽 개념 설명에서 발췌)

(3) 아저씨가 말하는 '세상 물정'의 뜻과 이에 대한 '나'의 반박을 고려하여, ㉢에 들어갈 말을 15자 이상 25자 이하로 쓰시오. (단, 공백은 글자 수에 포함하고 빈칸 밖의 마침표는 제외함) [4.1점]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9.0점]

(가)

천지의 조화가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만물을 감돌고 고금에 흐르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일 년으로 말하면 봄에서 여름이 되고 여름에서 가을이 되고 가을에서 겨울이, 겨울에서 다시 봄이 된다. 계절이 흐르고 추위와 더위가 바뀌며 만물을 피어나게 하고 시들게 한다. 마치 다그치는 것 같지만 멈추지 않는 데도 반드시 이유가 있다. 이 이치를 군자는 음미하여 마음을 다 쓰고, 소인은 모른 채 부림을 받는다. 모르는 데 만족하지 못하여 음미하려 하고, 부려지는 것을 꺼려 마음을 다 쓰려 한다면 훌륭하지 않겠는가.

전 훈련원 첨정(訓鍊院僉正) 유중한(柳仲翰) 군이 죽포(竹浦) 어귀에 정자를 세웠다. 바위에 기대 물가를 굽어보며, 높은 산과 이어지고 무성한 숲이 어리비친다. 그 사이에 아름다운 꽃을 심고 '장춘정(藏春亭)'이라는 현판을 걸었다. 또 정자의 서쪽 땅에 작은 집을 짓고 '매귤당(梅橘堂)'이라는 편액을 걸었다. 모두 난간을 두르고 단청을 칠하니 영롱한 빛이 감돌며 조용하고 시원하여 마치 별세계 같았다. 여기에 여러 명승지에서 지은 시를 새겨 문미(門楣)*에 걸고, 아울러 내 글을 걸어 자랑하려고 했다. 내가 유중한 군에게 물었다.

"일 년 중에 봄은 석 달뿐인데, 지금 봄을 감추어 간직한다는 뜻의 장춘(藏春)이라고 하였으니,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겠는가?"

유중한 군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사시(四時)와 팔절(八節), 이십사절기와 칠십이후(候)*는 일 년을 주기로 돌아오며 이 세상 밖에 숨어 있는데 사람들은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할 따름입니다. 봄바람이 불어 얼음이 녹고 벌레가 나오면 작은 양(陽)의 기운이 전부 땅 위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복숭아꽃이 피고 꾀꼬리가 울면 양의 기운이 가득하여 온갖 꽃이 피고 숲이 땅을 덮으며 고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산은 무성하고 아름다우며 물은 깨끗하고 멀리 흐르며, 태양은 빛을 더하고 하늘은 더욱 넓어지니, 이야말로 한창인 때입니다. 옛사람이 근심을 잊고 감상한 데는 참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구리가 울고 축융(祝融)*이 계절을 다스리면 봄이 여름으로 바뀌니, 봄을 간직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정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이한 화초를 무려 수십 종이나 모았고, 종마다 열 개씩 심었습니다. 뿌리가 엉키고 잎이 맞닿으며, 잎이 나란히 돋고 가지가 교차한답니다. 붉은 꽃이 지면 흰 꽃이 남아 있고, 옥빛 꽃이 지면 누런 꽃이 피니, 비록 계절이 바뀌어도 꽃은 시들지 않습니다.

게다가 겨울에도 푸른 나무가 있어 처마 사이로 푸르게 솟아 눈 속에서도 종종 꽃을 피우며, 향기를 풍기는 매화가 햇빛을 받으며 봄기운을 누설합니다. 이 때문에 정자에 들어온 사람은 항상 그 사이에서 봄기운을 느낍니다. 이것이 저의 정자를 장춘정이라고 이름 지은 까닭입니다.

옛날 조경순(刁景純)이 장춘오(藏春塢)를 만들자*, 소동파가 장춘부(藏春賦)를 지었습니다. '세월을 조화의 변화 밖에 버리니, 봄은 선생의 지팡이와 짚신 사이에 있다[年抛造化陶甄外 春在先生杖履中].' 이 말이 여기에 가깝지 않습니까? 저는 옛사람에게서 증거를 찾았는데, 선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A> [내가 말했다.

"그대의 말이 좋기는 하지만 미진한 점이 있구나. 천지의 조화에 따른 변화는 형체를 가진 존재라면 피할 수 없다. 봄은 사월이 지나면 사라지니, 어찌 그대의 정자에 간직할 수 있겠는가. 예컨대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이 없고 머리가 빠지지 않고 근력이 약해지지 않더라도 젊음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이다. 그런데 억지로 젊은이로 남아 있고자 한다면 잘못이 아니겠는가. 장자(莊子)의 말에 이르기를 '골짜기에 배를 간직하고, 못에 산을 간직하고는 잘 간직했다고 여기지만, 힘센 사람이 짊어지고 가 버리면 어리석은 자는 알 수 없다.'라고 하였다. 그대가 봄을 간직한다는 것도 이와 비슷하지 않은가.

봄은 조화의 자취이다. 조화는 마음이 없어 모든 것을 만물에게 맡기고 사사로운 짓을 하지 않는다. 봄조차 간직할 수 없는데, 하물며 높은 공명과 부귀, 풍요한 재물과 곡식, 비단처럼 없어지기 쉽고 사람들이 다투는 것은 어떻겠는가. 화려하게 쌓아 놓은 것이 며칠 되지도 않아 먼지로 변하여 바람에 날아가기란 잠깐이니, 붙잡아 두기에 부족하다. 과거에 노심초사하여 급급히 도모하면서 차지하기에 힘썼던 것이 하루아침에 이 지경에 이른다면 슬프지 않겠는가. 그러니 간직해서 무엇 하겠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회암 선생이 사계절을 끌어와 사람 본성의 네 가지 덕을 말씀한 적이 있다. 그분 말씀에 '봄은 봄이 생기는 때이고, 여름은 봄이 자라는 때이고, 가을은 봄이 완성되는 때이고, 겨울은 봄을 간직하는 때이다.'라고 하였다. 하늘의 성정(性情)은 원(元), 형(亨), 이(利), 정(貞)이 있어 낳고 자라고 거두고 숨기는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봄에 생긴 기운은 통하지 않는 때가 없다. 사람의 성정도 인(仁), 의(義), 예(禮), 지(智)에 따라 측은지심(惻隱之心), 수오지심(羞惡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의 각기 다른 명칭이 있으나, (㉠)이 모든 마음을 관통한다. 만약 하늘이 나에게 준 것을 가지고 거꾸로 찾아본다면, 간직할 수 없는 봄이 내게 없었던 적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점을 음미하여 마음을 다 쓰면 되지 않겠는가?"]

유중한 군이 그렇다고 하였다. 이 이야기를 정리하여 장춘정의 기문(記文)으로 삼는다.

– 기대승, 「장춘정기」

(EBS, 『 2027학년도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 한국교육방송공사, 2026, 308–310쪽 수록)

*문미: 창문 위에 가로 댄 나무. 그 윗부분 벽의 무게를 받쳐 줌.
*칠십이후: 음력에서 자연 현상에 따라 닷새를 한 후(候)로 하여 일 년의 기후(氣候)를 72로 나눈 것.
*축융: 화신(火神)으로 남방(南方)과 여름철을 맡았다고 함.

*조경순이 장춘오를 만들자: 경순은 북송 때의 문장가인 조약의 자로, 일찍이 진사에 급제하고 요직을 맡았지만 훗날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 장춘오라는 서재를 짓고 글을 지으며 여생을 마쳤다고 함.

(나)

성리학의 대표 학자 주희는 장재의 사상과 정이의 사상을 선별적으로 수용한 다음, 이를 종합하여 '이'와 '기'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이기론을 확립하였다. 주희는 우주는 '이'와 '기'가 살아 움직이며 만물을 낳고 기르는 생명적 체계이며 인간의 도덕적 수양이 곧 우주의 도를 실현하고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또한 그는 '이'와 '기' 중에 '이'는 만물과 인간 본성의 근원적 본체이며 '기'는 '이'가 현실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작용하는 수단이라고 하였다. '이'는 항상 선하고 불변하는 절대적 이치이며 '기'는 탁하거나 맑은 정도에 따라 현상 세계에서 다양한 차이를 만들어 낸다. 즉 만물은 '이'를 본성으로 갖지만 그것이 드러나는 양상은 '기'의 상태에 의해 달라진다. 인간도 마찬가지여서 본래의 '이'는 선하더라도 '기'가 탁하면 성정과 기질에 편차가 생기고 그 결과 감정과 욕망이 치우쳐 도덕적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희는 인간이 도덕적 존재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을 다스려 '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주희가 '이'만을 보존하고 '기'를 배제한 것은 아니다. 그는 '이'와 '기'를 모두 인정하되, '이'를 본체로 삼고 '기'를 그 발현 수단으로 보면서 균형 있게 다루고자 하였다. '기'는 우주와 인간의 변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주희는 '이'와 '기'를 구분하되 서로 떨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위계를 설정한 것이다.

– EBS, 『 2027학년도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 , 한국교육방송공사, 2026, 079–080쪽에서 발췌

(1) (가)의 <A>에서 ㉠에 들어갈 말을 찾아 4음절로 쓰시오. (단, 한자 병기는 음절 수 계산에서 제외함) [4.2점]

(2) (나)에 제시된 주희의 '이(理)'와 '기(氣)' 개념을 활용하여, (가)의 유중한이 추구한 장춘과 기대승이 제시한 참된 장춘의 차이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시오. [4.8점]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9.5점]

토지 행정은 국민의 삶과 우리 후손의 삶을 위하여 국토를 종합적으로 이용·개발·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관련 행정을 가리킨다. 토지 개발 계획을 입안하거나 결정하고 토지 거래를 규제하며 토지 이용을 조정하는 행정,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토지의 적정 가격을 평가하거나 공시하는 행정, 도시를 개발하거나 정비하는 행정, 농지의 소유 상한을 제한하고 이용을 증진시키며 농지를 보존하는 행정 등이 모두 토지 행정이다. 20세기 초까지는 토지의 이용 등에 대해 불간섭주의를 취하여 토지 소유자의 자유 및 지역 주민의 자치를 보장하였다. 그러나 20세기 중반부터는 국토 전체의 조화와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에 있는 각 지역이 담당해야 할 지역 질서를 설정하고, 인구나 산업의 과밀 억제 정책을 수립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토지 행정의 구체적 수단으로는 (㉠), (㉡) 등이 제시되고 있다. 토지 거래 허가제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로 인한 급격한 지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5년 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 규제 구역 안에서의 토지 등의 거래 계약에 대하여 국토 교통부 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토지 거래 허가제가 시행되는 경우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의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벌금에 처한다.

토지 거래 허가제는 「헌법」 제23조와 제122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헌법」 제23조에서는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을, 제122조에서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 및 보전을 위해 개인에게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권자의 입법 형성권에 근거하여 법률로 토지 소유권의 처분을 제한하는 토지 거래 허가제를 채택하는 것은 합헌적이다. 토지 거래에 대한 규제가 모든 사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 우려 지역 또는 지가 폭등 지역의 토지에 한정된다는 점, 규제 기간이 5년 이내인 점, 거래 목적이나 거래 가격 등에 있어서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어 토지 소유권의 처분이 완전히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거래 불허가의 경우 불복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토지 거래 허가제는 (㉢). 그러나 입법 형성권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될 수 없다.

한편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형성과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 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현재의 토지 적정 가격을 산정하여 지가를 공시하는 제도인 부동산 가격 공시제 역시 토지 행정의 구체적 수단일 수 있다. 공시 지가는 토지 가격의 적정한 기준을 나타내는데, 공시 지가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인 표준지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개별 토지에 따라 산정되는 개별 공시 지가를 말한다. 공시 지가는 토지 시장에 지가 정보를 제공하여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하는 기준이 된다.

공시 지가를 토지 거래의 지표로만 바라본다면 처분성이 있는 일반적인 행정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공시 지가는 보상액을 산정하거나 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단순한 기준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 한정액으로 작용하여 구속적인 기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제한적으로 공시 지가를 처분성이 있는 행정 행위라고 인정하는 부분 행정 행위 인정설이 다수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공시 지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거나 표준지 공시 지가를 기초로 개별 공시 지가를 산정하는 것에 불복한다면 그 자체의 위법성을 다툴 것이 아니라 공시 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EBS, 『 2027학년도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 한국교육방송공사, 2026, 136–137쪽에서 발췌(일부 빈칸 처리)

(1) 윗글의 전개 순서에 따라 ㉠과 ㉡에 각각 들어갈 토지 행정의 구체적 수단 명칭을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2) 윗글의 논지에 비추어 ㉢에 들어갈 내용을 30자 내외(공백 포함 20~40자)로 서술하시오. (단, ㉢ 앞에 열거된 근거들이 공통으로 보여 주는 토지 거래 허가제의 성격을 밝힐 것) [4.5점]

(3) 다음 <보기>의 사례 (가)~(마)가 윗글의 ㉠, ㉡ 가운데 어느 것과 관련되는지 분류하여 기호를 쓰시오. (단, 각 사례는 ㉠, ㉡ 가운데 하나에만 해당함) [3.0점]

< 보 기 >

(가) 신공항 건설 계획이 알려진 뒤 몇 달 사이에 땅값이 두 배 가까이 뛴 B군의 해안 마을 일대에서는, 앞으로 4년 동안 땅을 사고팔려는 사람이 계약을 맺기 전에 매매 목적과 가격을 군수에게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C시에 공장 부지를 사려던 甲은 매입 목적이 정해진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장에게서 거래 승인을 거절당하자, 이 거절 결정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다) 乙은 해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자기 임야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 이웃한 대표 필지의 가격을 바탕으로 산정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게 정해졌다고 보았다. 乙은 그 가격을 바탕으로 매겨질 재산세를 문제 삼는 대신, 애초에 그 가격을 정한 행정청의 판단을 없던 것으로 되돌려 달라며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 공공 기관은 업무용으로 쓸 땅의 가치를 감정하면서, 국가가 해마다 조사해 알리는 그 땅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산정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마) 丙은 땅값이 급등하여 거래 전 승인 대상으로 묶인 지역에서 승인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땅을 사는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고 대금 일부를 치렀다. 그런데 매도인이 마음을 바꿔 땅을 넘기지 않자, 丙은 이 계약을 근거로 땅을 넘겨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9.0점]

소비란 가계가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해 사용하는 행위이며, 얼마나 소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의 크기이다. 특히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의 크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소비와 가처분 소득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증가한다. 그리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서 커지는 소비의 증가분은 가처분 소득의 증가분보다 작다. 소비자들은 증가된 소득을 전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를 (㉠)하기 때문이다.

어떤 국민 경제의 가처분 소득이 Y_d, 그리고 소비가 C라고 할 때, 둘 사이의 관계는 '$C = a + bY_d$ (단, $a > 0$, $0 < b < 1$)'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때 a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이고, b는 한계 소비 성향이다. 이 식처럼 소비와 가처분 소득 사이의 관계를 단순한 1차 함수로 표현한 것을 케인스의 소비 함수라고 한다. 이 함수에 나타난 소비와 가처분 소득 사이의 관계에서 평균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평균 소비 성향은 주어진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를 나타내고, 한계 소비 성향은 가처분 소득이 1단위 증가할 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낸다. 이 한계 소비 성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정부는 효과적으로 경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평균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은 각각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평균 소비 성향 = C/Y_d
한계 소비 성향 = $\Delta C/\Delta Y_d$ (ΔC는 소비의 변화량, ΔY_d는 가처분 소득의 변화량을 나타냄.)

(중략)

평균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을 알면 평균 저축 성향과 한계 저축 성향도 알 수 있다. 평균 저축 성향이란 소비자들이 가처분 소득 중 얼마나 되는 비율을 저축하는지를 나타내고, 한계 저축 성향은 가처분 소득이 1단위 증가할 때 저축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낸다. 가처분 소득 중 소비되지 않은 부분이 저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 저축 성향은 1에서 평균 소비 성향의 값을 뺀 나머지와 같다. 또한 저축과 소비의 증가분을 더한 것은 항상 가처분 소득의 증가분과 일치해야 하므로 한계 소비 성향과 한계 저축 성향의 합도 역시 1이 된다.

가처분 소득의 크기가 소비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지만, 다른 요인들도 소비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우선 소비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들 수 있다. 소득이 많지 않아도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소비자는 재산의 일부를 현금화하여 소비에 충당할 수 있다. 물가 수준도 소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데, 물가가 오르면 갖고 있는 돈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의 실질 가치가 줄어들어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외에 미래 소득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소비자는 미래에 얻을 소득을 예상하고 현재의 소득을 초과하여 소비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소득뿐 아니라 미래의 예상 소득까지 감안하여 현재의 소비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프리드먼은 항상 소득 이론을, 모딜리아니는 생애 주기 이론을 주장하였다. 프리드먼에 따르면, 소득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에 해당하는 항상 소득과 일시적인 여건의 변화로 인해 생기는 일시 소득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소비자들의 소득은 보통 때보다 더 높아진다. 보통 때의 소득이 항상 소득에 해당한다면, 경기가 좋아 추가적으로 생긴 소득은 일시 소득이 된다. 프리드먼은 소비자들이 소비를 비교적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싶어 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항상 소득을 고려해 소비 수준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항상 소득과 관련된 한계 소비 성향이 상당히 큰 반면, 일시 소득과 관련된 한계 소비 성향은 그보다 훨씬 작다.

모딜리아니는 항상 소득 이론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이 소비를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소비자의 일생에 걸친 소득과 소비의 변화 양상에 주목한다. 소득은 청년기에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중장년기에는 높은 수준으로 오르고 은퇴 후에 다시 낮아지는 낙타의 등 모양과 같은 변화 양상을 보인다. 반면 소비는 일생에 걸쳐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 소비자들이 현재 소득이 아니라 일생 동안의 소득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소비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득이 작은 청년기에는 앞으로 소득이 커질 것을 예상하고 소득보다 더 높은 소비 수준을 유지한다. 그리고 중장년기에 소득이 높아지면 이를 모두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기에 생긴 빚을 갚고 은퇴 후를 대비하여 (㉠)을/를 하고, 은퇴 후에는 소득이 거의 0으로 떨어지지만 그동안 모아 두었던 돈으로 종전과 비슷한 소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 EBS, 『 2027학년도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 한국교육방송공사, 2026, 21–22쪽에서 발췌(일부 빈칸 처리)

(1)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를 윗글에서 찾아 한 단어로 쓰시오. [2.7점]

(2) 다음 <보기>의 사례를 윗글의 이론에 따라 분석한 표의 ⓐ, ⓑ, ⓒ에 들어갈 말을 각각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단, ⓑ와 ⓒ는 '성향'으로 끝나는 말로 쓸 것) [6.3점]

< 보 기 >

[사례 1] 회사원 甲은 업계 전반에 일감이 몰리는 호황이 이어지면서 지난 여섯 달 동안 매달 기본급 외에 세금 등을 뗀 금액으로 50만 원의 특근 수당을 받았다. 회사는 일감이 예년 수준으로 줄면 특근을 없앨 계획이다. 특근 수당의 유무 외에 甲의 소비 수준에 영향을 주는 조건은 같다고 가정한다.

[사례 2] 올해 입사한 乙(27세)은 지금 받는 월급이 적지만 앞으로 소득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乙은 세금 등을 떼고 받는 월급보다 많은 돈을 매달 생활비로 쓰고, 모자라는 돈은 대출을 받아 메우고 있다.

<사례 분석>

구분	이론에 따른 판정	판정에서 이끌어 낸 내용
사례 1(甲)	프리드먼의 소득 구분에 따르면, 매달 받는 특근 수당 50만 원은 (ⓐ)에 해당함.	특근 수당이 없는 경우와 비교할 때, 甲의 월 소비 증가분은 '50만 원 × (ⓑ)'로 나타낼 수 있음.
사례 2(乙)	모딜리아니의 이론에 따르면, 乙은 생애 가운데 소득이 낮은 시기에 앞으로의 소득을 예상하여 소비 수준을 정하고 있음.	이 시기 乙의 (ⓒ)은/는 0보다 작은 값을 가짐.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9.5점]

원자에는 중심에 핵이 있고, 핵 주위에 동심원처럼 퍼져 있는 특정 궤도들을 도는 전자들이 있다. 이 궤도마다 전자가 갖는 에너지 값이 정해져 있는데, 이 값을 에너지 준위라고 한다. 원자가 가진 특정한 몇 개의 궤도에만 전자가 존재하므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도 특정한 값으로 정해져 있다. 전자는 에너지를 얻으면 바깥쪽 궤도로, 에너지를 잃으면 안쪽 궤도로 이동한다. 원자가 하나일 때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특정한 값이지만, 여러 원자가 모이면 여러 원자들의 궤도가 중첩되면서 전자들이 서로 영향을 미쳐 에너지 준위에 변화가 생긴다. 이로 인해 에너지 준위는 특정한 값이 아닌 일정한 범위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에너지 값이 범위로 표현된 것을 에너지 밴드라고 한다. 보통의 물질들은 수많은 원자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에너지 밴드를 갖고 있다. 전자는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되려는 성질이 있으므로, 발광 물질의 전자에 에너지가 공급되면 전자가 바깥쪽으로 이동한 뒤 다시 빛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안쪽으로 이동하며 에너지 값이 변한다. 수많은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은 전자들이 높은 에너지 밴드에서 낮은 에너지 밴드로 이동하기 때문에 에너지 변동 폭이 특정한 값이 아닌 일정한 범위를 이루게 된다.

에너지가 공급되었을 때 전자의 에너지가 변동되는 폭이 클수록 방출되는 빛 에너지가 크고 변동 폭에 따라 빛의 색이 다르다. 그런데 물질의 입자 크기가 나노미터(nm) 단위로 작아지면 물질의 전자 에너지 준위 구조가 달라져, 전자 에너지 변동 폭에 변화가 생긴다. 반도체 성질을 가진 나노미터 크기의 입자를 양자점이라고 하는데, 양자점은 크기에 따라 다른 색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나노미터 크기의 입자에 에너지가 공급되었을 때,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전자의 에너지가 변동되는 폭이 크다. 이때 변동 폭이 클수록 푸른 계열의 빛을, 작을수록 붉은 계열의 빛을 낸다.

발광 물질의 에너지 변동 폭이 일정하지 않으면 선명한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기 어려워진다. 디스플레이는 빛의 삼원색인 빨강, 초록, 파랑의 색을 합쳐서 특정 색을 만들어 내는데, 삼원색이 얼마나 원색에 가까운지가 화질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이다. 전자가 방출하는 빛 에너지가 클수록 파장이 짧고, 작을수록 파장이 긴데, 수많은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은 전자들이 넓은 에너지 밴드를 형성하기 때문에 전자들이 에너지 밴드에서 다른 밴드로 이동하며 빛 에너지를 방출한다. 따라서 방출되는 빛의 (㉠)이/가 특정한 값이 아닌 넓은 범위가 된다. 이 때문에 나타내고자 하는 색의 파장뿐 아니라 비슷한 다른 색의 파장이 섞여서 나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양자점은 적은 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좁은 범위의 (㉠)을/를 갖는 빛을 낼 수 있다. 따라서 의도한 파장에 가까운 빛을 집중적으로 방출하고 그 외의 빛은 적게 방출함으로써 원색에 가까운 빛을 발할 수 있다. 한편 에너지 밴드 내에서 전자들이 이동할 때는 전자의 에너지 변동으로 인해 열이 방출되면서 발광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에너지 밴드를 갖는 발광 물질을 활용한 LCD와 같은 디스플레이는 다른 (㉠)의 빛이 뒤섞이거나 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자점 디스플레이는 이러한 현상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이로 인해 뛰어난 화질을 구현하면서도 발열을 줄일 수 있어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양자점은 발광을 담당하는 코어, 코어를 덮는 단단한 껍질인 셸, 주로 셸에 붙는 유기 화합물인 리간드로 이루어져 있다. 무기물로 이루어진 셸은 온도나 습도에 의한 손상을 막아 발광 효율을 유지하고 양자점의 수명을 연장하며, 리간드는 셸에 붙어 안정화와 성능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 코어가 공기나 수분에 노출될 경우 산화될 수 있고, 빛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색을 가진 물체에 빛이 닿아서 퇴색하는 현상인 광 퇴색이 발생하여 양자점이 선명한 색을 띠지 못하게 될 수 있는데, 리간드와 셸이 이러한 현상을 막는 역할을 한다. 양자점과 같이 표면층이 중심부를 보호하는 구조를 가진 경우는 많지만, 양자점은 크기가 큰 입자들에 비해 특히 표면층의 중요성이 크다. 이는 물체의 크기에 따라 부피와 표면적의 비가 달라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한 변이 10m인 정육면체의 부피와 표면적은 각각 1,000m^3, 600m^2이지만 한 변이 1m인 정육면체는 각각 1m^3, 6m^2이다. 즉 (㉡) 것이다. 이처럼 입자의 크기가 작아질 때, 부피가 줄어드는 비율보다 표면적이 줄어드는 비율이 낮은데, 이로 인해 양자점의 코어가 안정적으로 제 성능을 내는 데 셸과 리간드가 큰 영향을 미친다. 코어의 재료로 사용되는 원소 중 하나인 카드뮴은 독성이 있는데, 셸과 리간드가 코어의 원소로부터 나오는 독성으로부터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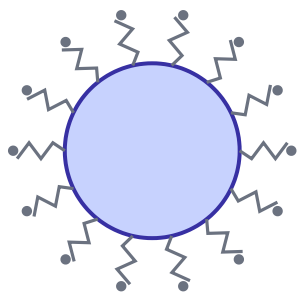
– EBS, 『 2027학년도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 한국교육방송공사, 2026, 172–173쪽에서 발췌(일부 빈칸 처리)

(1)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2음절의 단어를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2.1점]

(2) 윗글의 정육면체 예에 제시된 수치를 활용하여, 부피와 표면적이 각각 원래 값에 비해 줄어드는 비율을 수치로 비교하는 내용으로 ㉡에 들어갈 말을 30자 내외(공백 포함 20~40자)로 쓰시오. [5.2점]

(3) 아래 <그림>은 양자점의 구성 요소 가운데 일부만을 단면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 나타나지 않은 양자점의 구성 요소를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2.2점]

<그림> 양자점의 단면



※ 가운데 원은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빛을 내는 부분이고, 원의 표면에 직접 붙은 곡선은 유기 화합물 분자를 나타낸다.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9.5점]

(가)

인간은 고기와 가죽을 얻거나 실험에 이용하는 등의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다. 그리고 그런 이용은 일반적으로 동물에게 해악을 끼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에 잘못된 행동으로 인식된다. 동물에게 이렇게 해악을 끼치는 것을 정당화할 방법이 있을까? 한 가지 대답은 동물은 단지 동물이기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종(種) 차별주의'는 이렇게 우리가 속한 종의 이익을 다른 종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것을 말한다. 동물은 우리 종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 절대 하지 않는 방식으로 동물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 차별주의를 옹호하는 가장 직관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은 인간은 인간이라는 종에 속하므로 특별한 대우를 받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와 같은 인간이므로 더 중요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허용된다면, 나와 같은 성별이기에 더 중요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성차별주의'나, 나와 같은 인종이므로 더 중요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인종 차별주의'도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같은 종에 속한다는 것 말고 도덕적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한 특징을 제시해야 한다.

(중략)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은 매우 다른 정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종 차별주의를 지지하는 이들도 있다. 인간은 정교한 언어, 복잡한 사고 능력, 도덕적 이상에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능력은 인간 종을 다른 종보다 우선시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도 있다. 인간 종에 전형적인 정신적 또는 인지적 능력이 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중요한 특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만 있는 정신 능력이 도덕적으로 중요하다고만 주장해서는 안 되고 왜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특성은 '인간의' 것이므로 특별하다고 주장하는 셈이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박쥐라면 아마도 위와 같은 특성 대신에 반향 위치 측정 능력이 도덕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앞서 말한 고차원적 정신 능력을 갖추고 있기에 자의식이나 자존감 같은 사고 능력이 있다고 설명해야 한다. 그렇다면 아무리 잘 먹여 주고 고통 없이 기른다고 하더라도 사육을 위해 길러진다면 인간성이 훼손되기에 인간 사육은 옳지 못하다. 반면에 그런 능력이 없는 동물은 가두어 길러진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의 설명은 인간의 배타적 특성이 왜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종 중첩 논증'에 취약하다. 예를 들어 아기와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뇌 손상 환자는 위에 나열된 고차원적 정신 능력을 갖추고 있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생물학적으로 인간이지만 고차원적 정신 능력으로 분류할 때는 동물과 중첩되는 인간들이 있다. 하지만 그런 인간들에게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육이나 실험과 같은 행동을 동물에게는 한다. 또 침팬지와 같은 영장류 동물 중에는 위와 같은 정신 능력을 적어도 아기와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뇌 손상 환자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진 개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동물이라고 해서 인간과 똑같이 대우하지는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성차별이나 인종 차별이 만연했던 과거 사회와 달리 지금은 그런 차별이 비난받는 것처럼, 종 중첩 논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종에 따른 차별도 언젠가는 비난받게 될 것이다. 종 차별주의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종 중첩 논증은 어떻게든 해결되어야 한다.

– EBS, 『 2027학년도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 한국교육방송공사, 2026, 088–089쪽에서 발췌

(나)

충혜왕 때 응방(鷹坊) 소속 관리가 닭을 매의 먹이로 주었다. 매가 날개 하나를 다 먹자 거의 죽어 가는 닭을 자루에 넣어 두었는데, 아침이 되자 그 닭이 울었다. 이 일을 아뢰자 성상께서 측은하게 여겼다. 그 뒤 조정에서 논의해 응방을 혁파했다. 닭이 우는 것은 본성이므로 듣는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 그러다가 다친 닭이 한 번 울자 임금이 감동하고 나라에서 관청을 폐지했다. 여기에서 인(仁)이 원래부터 사람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 백성들은 매를 잡느라 고생했다. 높은 곳에 사는 매를 잡으려다가 절름발이가 된 사람도 있었고, 바다에 사는 매를 잡으려다가 배가 가라앉으면서 빠져 죽은 사람도 있었다. 그물을 쳐서 매를 잡으면 이어서 매가 앉을 토시를 만들고, 집에서 기르며 먹이고 밭의 곡식이 짓밟혔다. 매의 폐단을 말하는 사람들의 호소가 어찌 닭 한 마리의 울음소리 정도에 그쳤겠는가.

닭은 원래 사람처럼 영험하지 않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하는 말은 믿지 않고 닭이 한 번 울자 감동했다. 사람 이하로 노루, 토끼, 여우, 살쾡이처럼 털 있는 동물과 기러기, 고니, 오리, 비둘기처럼 날개 달린 동물이 모두 그 혜택을 입었다. 사람의 말은 의도가 있어서 나온 것이지만 닭의 울음은 의도 없이 나왔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은 남이 하는 말에는 어둡지만 자기가 믿는 데는 밝은 법이다. 그러므로 제선왕(齊宣王)은 한 마리 소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했으니, 이는 어진 마음의 발로라 하겠지만 어진 정사를 펼치라는 맹자의 말은 살피지 못했다. 『서경(書經)』 「강고(康誥)」에 "어린아이를 돌보듯 하라." 하였다. 임금에게 평소 백성을 자식처럼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찌 닭이 울기를 기다린 뒤에야 측은하게 여기겠는가. 임금이 한창 매를 좋아할 때는 용방이나 비간과 같은 충신이 조정에서 간쟁했다 하더라도 필시 성을 내며 죽여 버렸을 것이니, 신하들도 모두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 임금이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었을 때야말로 쉽게 간언할 기회였다. 그런데 응방을 혁파하라고 말하지 못하고 충혜왕이 유배를 가는 도중에 악양(岳陽)에서 죽은 뒤에야 응방이 혁파되었다. 아, 이 또한 늦은 일이었다.

– 이첨, 「응계설」

(EBS, 『 2027학년도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 한국교육방송공사, 2026, 246쪽 수록)

(1) <보기 1>은 (가)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가)에서 찾아 쓰시오. [3.7점]

<보기 1>

인간의 배타적인 고차원적 정신 능력을 근거로 종 차별주의를 정당화하려는 입장은 (ⓐ)에 취약하다. 왜냐하면 유아나 중증 뇌 손상 환자처럼 그러한 정신 능력이 결여된 인간이 있는 반면, 특정 동물은 이들보다 뛰어난 정신 능력을 지닐 수 있어 능력의 측면에서 인간과 동물이 중첩되기 때문이다.

(2) <보기 2>는 (나)에 드러난 군주의 인식과 그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을 정리한 것이다. ㉠과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나)에서 각각 찾아 쓰시오. (단, ㉠은 2어절, ㉡은 공백을 제외하고 4음절로 쓸 것) [5.8점]

<보기 2>

(나)의 임금은 매를 잡느라 다치고 죽어 가는 백성들의 호소는 믿지 않으면서도, 의도 없이 나온 (㉠)에는 감동하였다. 글쓴이는 제선왕이 소를 차마 보지 못한 것을 '어진 마음의 발로'로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마음이 평소 백성을 돌보는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을 문제 삼는다. 『서경』에서 "어린아이를 돌보듯 하라."라고 하였듯이, 군주는 맹자가 제선왕에게 권한 바와 같이 평소 백성을 자식처럼 여기며 (㉡)을/를 펼쳤어야 했다. 게다가 신하들은 임금에게 측은한 마음이 들었을 때 응방을 혁파하라고 간언하지 못했고, 응방은 충혜왕이 죽은 뒤에야 혁파되었다.

[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미니멀리즘 음악은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 태동한 현대 음악의 한 흐름으로, 라 몬테 영, 테리 라일리, 스티브 라이히, 필립 글래스 등이 대표적 작곡가로 꼽힌다. 이들은 소수의 음형*이나 단순한 패턴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기존 음악의 복잡한 서사나 화성 전개를 과감히 축소하여, 감상자가 소리 그 자체를 경험하도록 유도한다.

전통적인 서양 음악에서 반복은 주제를 강조하여 이를 서사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예컨대 제시부–발전부–재현부로 구성된 소나타 형식은 제시부에서 등장한 주제가 발전부에서 여러 차례 변주되다가 재현부에서 제시부에 등장한 형태로 회귀함으로써, 작곡가가 설정한 주제를 확인 및 강화하는 구조를 이룬다. 철학자 들뢰즈의 표현을 빌리면, 이와 같은 '같은 것의 반복'에서는 특정 주제가 중심에 놓이고 음악의 각 부분은 그 주제를 재확인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반면, 미니멀리즘 음악의 반복 형식은 '차이를 생성하는 반복'이다. 표면적으로 동일해 보이는 음형이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음색, 강세 등의 미세한 차이가 매 순간 드러나면서 감상자는 새로운 음악적 사건을 지속적으로 만나게 된다. 마치 천천히 회전하는 만화경처럼,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패턴이 드러나는 것이다.

(중략)

라 몬테 영이 음의 지속을 통해 '차이를 생성하는 반복'을 탐구했다면, 스티브 라이히는 「피아노 페이즈」에서 위상 변위를 통해 이러한 차이 생성을 더욱 역동적으로 구현한다. 위상 변위란 동일한 음악 패턴을 여러 악기가 약간 다른 속도로 연주하여, 처음에는 완벽히 일치하던 패턴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어긋나게 만드는 기법이다. 동일한 4마디 패턴을 한 악기는 원래 속도로, 다른 악기는 미세하게 빠른 템포로 연주함으로써 두 악기의 연주가 서서히 어긋나게 된다. 처음에는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두 악기가 내는 음들이 겹치고 밀리면서 새로운 음악적 사건이 펼쳐진다. 이러한 음악적 사건은 작곡가의 내면이나 음악적 서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통로가 아니라, 동어 반복의 효과를 통해 내부의 잠재성을 발현하게 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여기서 동어 반복이란 외부의 다른 요소와 결합·대립하지 않고 자기 동일성만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양상을 일컫는다. 미술가 칼 앙드레가 일정한 형태의 금속판을 줄지어 놓는 식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보다 '그 자체로 존재함'을 선보였듯, 최소한의 음 재료를 반복적으로 나열함으로써 특정 상징이나 주제에 갇히지 않는 개방적 구조를 실현하는 것이다.

미니멀리즘 음악은 감상자의 감상 방식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킨다. 감상자는 음악이 '어떤 주제를 보여 주고자 하는가?'라는 전통적인 질문에서 벗어나 '내가 듣는 이 음향은 방금 전의 그것과 어떤 차이를 갖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음악적 경험은 전통적인 음계나 화성 구조의 틀을 넘어, 음 자체의 순간순간 달라지는 변화를 직접 체감하는 내재적 과정으로 전환된다. 감상자는 작곡가가 미리 설정한 보편적 주제를 알아맞히는 수동적 존재에서, 지금 울리고 있는 음들의 강도와 미묘한 위상의 변화를 온전히 체감하는 능동적 참여자로 거듭난다. 이처럼 미니멀리즘 음악은 동일한 것을 반복시키는 표면적 단순함 속에서 끊임없이 차이를 생성하는 역설적 작법을 통해 전통 음악이 유지해 온 주제 중심적 서사를 과감히 해체한다.

– EBS, 『 2027학년도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 , 한국교육방송공사, 2026, 058-059쪽에서 발췌

*음형(音 型): 몇 개의 음이 연속하여 어떤 가락이나 악곡의 요소가 되는 음의 모양.

(1) <보기 1>은 A~C의 반복을 윗글의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정리한 것이다. ㉠, ㉡, ㉢에 각각 들어갈 개념어를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단, ㉠~㉢에는 서로 다른 말이 들어감) [4.5점]

< 보 기 1 >

사례	내용	윗글의 개념
A	한 설치 작품은 크기와 색이 똑같은 흰 상자 스무 개를 다른 물건이나 장식 없이 바닥에 같은 간격으로 늘어놓았다. 상자들이 무엇을 나타내느냐는 물음에 작가는 "상자는 상자일 뿐이고, 그저 거기 놓여 있을 뿐이다."라고 답하였다.	(㉠)
B	어느 교향곡의 첫머리에 나온 선율은 곡의 중간에서 리듬과 조가 바뀐 여러 모습으로 거듭 나타나다가, 곡의 끝에서 처음 모습 그대로 다시 울린다. 청중은 곡이 끝난 뒤 그 선율을 곡 전체를 이끈 중심 선율로 또렷이 기억한다.	(㉡)
C	한 피아니스트가 다섯 음으로 된 짧은 음형을 20분 동안 되풀이한다. 악보에는 같은 음형만 적혀 있지만 건반을 누르는 세기와 음이 울리는 길이가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져, 청중은 같은 음형을 들으면서도 매번 다른 울림을 새로 만나게 된다.	(㉢)

(2) <보기 2>의 제5연과 제6연은 앞의 두 행을 똑같이 되풀이하고 셋째 행만 달리하였다. <보기 2> 전체의 맥락에 윗글의 반복 개념을 적용할 때 이 반복이 어떤 반복에 해당하는지 밝히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포함하여 답안 전체를 40자 내외(공백과 문장 부호 포함 35~45자)로 쓰시오. [5.5점]

< 보 기 2 >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집에
가마귀 가왁가왁 울며 새었소.

오늘은
또 몇 십 리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말 마소 내 집도
정주(定州) 곽산(郭山)
차(車) 가고 배 가는 곳이리오.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 십자(十字) 복판에 내가 섰소.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 김소월, 「길」
(EBS, 『 2027학년도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 , 한국교육방송공사, 2026, 9쪽 수록)

*바이: 전혀.

[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2점]

(가)

허구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꾸며 낸 거짓말이다. 소설과 같은 허구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장 자체가 갖는 '의미론적 내용'과 문장이 사용된 맥락 속에서 독자나 청자가 실제로 파악하게 되는 '사용상의 내용'을 구별해야 한다. 의미론적 내용은 작가나 화자의 의도, 문장이 사용된 맥락과 무관하게 문장이 지시하는 내용 자체, 즉 명제이고, 사용상의 내용은 작가나 화자의 사용 의도와 문장이 사용된 맥락에 따라 문장이 전달하는 내용, 즉 그 문장이 실제로 사용된 내용이다.

<A> [월턴은 이러한 구별을 이용해 허구 이야기를 '믿는 체하기 놀이'로 해석한다. 허구 이야기는 독자나 청자가 그 내용이 실제가 아님을 알면서도 마치 실제인 것처럼 가정하고 참여하는 일종의 놀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허구 이야기 속 문장은 명제를 표현하는 형식이 아니라 놀이를 작동시키는 ㉠소품이므로, 독자나 청자는 오직 이 문장을 놀이 규칙 안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 문장의 (㉡)만을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한양의 어느 마을에 놀부와 흥부라는 형제가 살았다."라는 문장이 소설에 쓰였을 경우, 이 문장의 의미론적 내용은 이러한 놀이에서 비활성화되며, 이 문장을 믿는 체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허구 이야기 안에서만 사실이라는 (㉡)을/를 전달할 뿐이다.]

이러한 월턴의 접근은 허구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인식 행위와 감정 반응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독자나 청자는 허구 이야기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마치 실제인 것처럼 인식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연극 공연 중 배우가 "호랑이가 달려온다."라고 외쳐도 누구도 그 말이 사실이 아님을 알지만, 배우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지 않는다. 이는 허구 이야기가 문장이 지시하는 내용을 언어로 표현하는 행위, 즉 언어 행위가 아닌 놀이로서의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허구 이야기를 감상할 때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대신 놀이의 ㉠소품으로 그 문장들을 인식하고 슬퍼하거나 기뻐하는 등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월턴에 따르면, '흥부'와 같은 허구 이름을 포함하는 허구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명제를 포함하지 않는다. 허구 이름이 지시하는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름은 내용이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이름을 포함하는 문장도 참이나 거짓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허구 이야기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왜 참이나 거짓으로 평가되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가 허구의 등장인물들에 대해 감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그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을 인식하는 이중적 태도를 지닐 수 있는지 설명해 준다.

– EBS, 『 2027학년도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 한국교육방송공사, 2026, 013-014쪽에서 발췌

(나)

삼 년을 임을 떠나 해도(海島)에 유배되니
내 언제 무심하여 임에게 득죄했나
임이 언제 박정(薄情)하여 날 대접 소홀히 했나
내 얼굴 고왔던지 질투하는 건 뭇 여자로다
유한(幽閑)한 이내 몸을 선음(善淫)한다 이르로세*
(중략)
추운 겨울 깊어지고 육지는 못 통(通)하니
양식도 핍절(乏絶)커늘 반찬이야 의논하며
염장*을 못 먹거든 어육(魚肉)이야 바랄쏘냐
섬 안 수십 리에 일년초가 희한하다
조석(朝夕) 밥도 못 익힐 제 방이 덥기 생각할까
설날 큰 명절에 솟국*에 떡을 쑤어
갯물에 절인 배추 반찬으로 올랐으니
어와 이 몰골은 태어나 처음 보네
춘풍 도리화(春風桃李花)야 못 본다고 상관하랴
가을이 다하도록 국화를 못 보거든
낙모가절(落帽佳節)*에 쫓겨난 신하를 누가 우시며
굴원이 여기 온들 무엇으로 저녁에 먹을꼬*
여름 석 달 다 지내고 괴로움 실컷 겪으니
찌는 더위도 그지없고 습한 기운도 더욱 심하다
파리 떼와 모기떼는 백 가지로 쏘아 제치고
뱀과 전갈, 지네는 네 벽에 마구 기어다니니
어떤 일도 흉겨운 모양 없고 백악(百惡)만 구비(具備)하다
사람 상하게 하고 물건에 해 끼칠 것 세상에 많기도 많구나
밤중에 잠이 없어 이불 두르고 일어나 앉아
신세를 한탄하고 평생을 생각하니
외로운 이내 몸이 자손도 없는 게요
습한 바다에서 병이 든들 구호할 이 뉘 있으며
반계(盤溪)에 있는 내 집 비어 있는들 누가 지킬꼬
하사받은 천 권의 책 고각(高閣)에 묵혀 있으니
좀벌레 다 먹은들 그 누구라서 포쇄*하며
뜰 안에 가득한 꽃을 베어 버린들 누가 금할꼬
천하에 죄 없는 이 나밖에 또 있을까
주 문왕이 기산 다스릴 제 어진 정치를 베푸시면
가련한 이내 몸이 반드시 먼저 들려니
천지간 홀로 서서 사방을 둘러보니
우리 임 아니시면 누구를 다시 의지할꼬
시운(時運)이 불행하여 천 리에 떠나시니
내 신세 외로운 줄 임이 모르실까
긴 소매 들고 앉아 옛 잘못을 헤아리니
우직하기 본성이요 망령됨도 내 죄로되
근본을 생각하면 임 위한 정성일세
일월 같은 우리 임이 거의 아니 굽어볼까
날 살리신 이 은혜를 결초(結草)하기 생각하나
광주리의 가을 부채 어느 날 다시 날꼬
맑은 새벽 혼자 누워 백두음(白頭吟)*을 슬피 읊고
황금을 못 얻으니 장문부(長門賦)*를 어이 사리
마름과 연(蓮)으로 옷을 짓고 부용(芙蓉)으로 치마 지어
상자 안에 두어신들 눌 위하여 단장할꼬
고향에 돌아갈 꿈 벽해(碧海)를 밟아 건너
옥루(玉樓) 높은 곳에 밤마다 임을 모셔
일당우불(一堂吁**咈**)에 수답(酬答)이 여향(如響)하니*
앞에서 귀신을 묻던 가태부(賈太傅) 이러한가*
어촌의 먼 닭 소리에 긴 잠을 깨어나니
우리 임 옥음(玉音)은 귓가에 완연(宛然)하고
우리 임 어로향(御爐香)이 옷과 소매에 품었어라
어느 날 이내 꿈을 진짜로 삼을 건가
두어라 임금께서 고치시기를 날마다 바라노라

– 이진유, 「속사미인곡」
(EBS, 『 2027학년도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 한국교육방송공사, 2026, 67-68쪽 수록)

*선음한다 이르로세: 음란한 짓을 잘한다고 이르는구나. 굴원의 「이소」에서 비롯한 표현으로 소인배가 군자를 모함함을 뜻함.
*염장: 소금으로 간을 한 음식.
*솟국: 고기를 넣지 않고 끓인 국.
*낙모가절: 중국 진나라 때 인물인 맹가가 중양절(음력 9월 9일)에 국화주에 취해 모자가 떨어진 것도 몰랐는데 함께 있던 사람이 이를 조롱하는 글을 써 보이니 그 글에 화답하는 멋진 글을 지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표현.
*굴원이 ~ 먹을꼬: 굴원의 「초사」에 나오는 '저녁에는 가을 국화 떨어진 꽃잎 주워서 먹네'라는 구절에서 비롯한 표현.
*포쇄: 젖거나 축축한 것을 바람에 쐬고 볕에 바램.
*백두음: 중국 한 무제 때 문인인 사마상여가 첩을 들이려 하자 그의 아내 탁문군이 원망의 마음을 담아 써 보낸 시로, 이 시를 읽은 사마상여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첩을 들이지 않았다고 함.
*장문부: 중국 한 무제의 비인 진 황후가 사마상여에게 황금을 주고 이 글을 짓게 해 황제의 총애를 회복했다고 함.
*일당우불에 ~ 여향하니: 한 방에서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나타낸 표현임.

*앞에서 ~ 이러한가: 모함을 받아 변방에 좌천되었던 가태부를 효문제가 불러 밤새 가까이 마주 앉아 귀신에 대해 논했던 일을 말함.

(1) ㉠과 대비되는 개념이자 작가나 화자의 의도, 맥락과 무관하게 문장이 지시하는 내용 자체를 가리키는 2음절의 단어를 (가)에서 찾아 쓰시오. [3.9점]

(2)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을 (가)에서 찾아 쓰시오. [2.4점]

(3) <A>의 '믿는 체하기 놀이' 관점을 바탕으로, 남성 신하인 작가가 (나)에서 여성 화자의 목소리와 행동을 설정한 표현 방식과 이를 수용하는 독자의 감상 태도를 설명하시오. [5.7점]

인문계열

수학 영역

SN · EBS 연계

9. 함수 $f(x)=\left|(\log_2 x)^2-10\log_2 x+16\right|$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8점]

(1) $t>0$일 때, 부등식 $|t^2-10t+16|\geq 5$를 만족시키는 t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3.5점]

(2) $1<a\leq 100$인 실수 a에 대하여, $a\leq x\leq 4a$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geq k$가 성립하도록 하는 a가 존재하게 하는 실수 k의 최댓값과, 그때의 a의 값을 구하시오. [4.5점]

10. 두 상수 a $(0<a<2\pi)$, b $(b>0)$에 대하여 $0\leq x\leq 2\pi$에서 정의된 함수

$$f(x)=\begin{cases}\sin x & (0\leq x\leq a)\\ b\cos x-b\cos a+\sin a & (a<x\leq 2\pi)\end{cases}$$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12점]

(가) x에 대한 방정식 $f(x)=k$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는 $0\leq k\leq \dfrac{3}{5}$이다.

(나) x에 대한 방정식 $f(x)=l$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l의 값은 $-\dfrac{3}{5}$과 1뿐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3.0점]

(2) $\sin a$와 $\cos a$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2.5점]

(3) b의 값을 구하시오. [3.0점]

(4) x에 대한 방정식 $f(x)=k$의 서로 다른 세 실근의 합이 $\dfrac{8}{3}\pi$일 때, k의 값을 구하시오. [3.5점]